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사례연구: Seattle Reads

A Case Study of ‘One Book, One City’ Commun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s: Seattle Reads

윤 정 옥 (Cheong-Ok Yoon)*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Seattle Reads’의 영향과 평가 |
| 2. 선행연구 | 5. 맺음말 |
| 3. ‘Seattle Reads’의 현황 | |

초 록

이 연구는 ‘한 책, 한 도시’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원형인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의 ‘Seattle Reads’의 사례연구로 진행하였다. 1998년 출범한 ‘Seattle Reads’의 지난 25년간 목표, 선정 책들의 특성 및 주요 행사와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One Book’ 독서운동으로서의 현황 및 지향점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Seattle Reads’는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독려함으로써 성인 대중을 위한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원형을 제시하였다. ‘Seattle Reads’는 매년 꾸준히 다양한 문화적 및 민족적 배경을 가진 작가들의 책을 읽고 이야기함으로써, 다양성의 이해 및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One Book’ 독서운동으로서의 지속성, 일관성, 자율성 및 독립성이라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a case study of ‘Seattle Reads’, which launched in 1998 and has become the prototype of ‘One Book, One City’ Commun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prehend further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goals of ‘Seattle Reads’ as a typical ‘One Book’ program by docum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ne Book’s selected for the past 25 years and their related events and activities. ‘Seattle Reads’ presented the model of ‘One Book’ program, which consists of the selection of ‘One Book’ for adult readers, its reading and discussion, and a variety of events and activities in the community. This analysis of ‘Seattle Reads’ demonstrates the continuity, consistency, self-reliance, and independence of a ‘One Book’ program, by reading and talking about ‘One Book’ by authors with diverse cultural and ethnic backgrounds, and trying to understand and integrate differences among people in the community.

키워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One Book’ 독서운동, 지역사회 독서운동, 시애틀 리즈, 공공도서관 행사

‘One Book, One C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One Book’ Reading Campaign, Community Reading Campaign, Seattle Reads, Events in Public Libraries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de@cju.ac.kr / ISNI 0000 0000 4145 6478)

논문접수일자: 2023년 10월 26일 최초심사일자: 2023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10월 3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4): 161-184, 2023.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4.161>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머리말

1.1 연구의 배경

지금까지 공공도서관 역사상 가장 두드러지는 혁신적인 활동 중의 하나로 평가된 바 있는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이하 ‘One Book’이라 부름)(윤정옥, 2013a, 22)은 지난 1998년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시의 시애틀 공공도서관(Seattle Public Library)이 주관하는 ‘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2004년 ‘Seattle Reads’로 이름을 바꾼 이 독서운동(이하 ‘Seattle Reads’라 부름)은 이후에도 매년 진행되었으며 2023년에 25주년을 맞이했다. ‘Seattle Reads’가 제시한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면서 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면서, 문화를 향유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One Book’ 독서운동의 모형은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채택되었고, 뉴질랜드, 영국,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전해졌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3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충남 서산시와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을 시작한 이래, 2023년 기준, 시·도 단위 60여 개 지역에서 ‘One Book’ 독서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경기도 군포시의 ‘군포의 책’ 등 몇 개 ‘One Book’ 프로그램은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원북 원부산’, ‘책 읽는 평택’ 등 많은 ‘One Book’ 프로그램들이 십 년 이상 이십 년 가까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2021년 시작된

‘아산시의 한 책 함께 읽기’나 세종시의 ‘한 도시 한 책 읽기’와 같이 최근에 새롭게 시작된 ‘One Book’ 프로그램들도 있다. 이처럼 국내 도서관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One Book’ 독서운동의 원형인 ‘Seattle Reads’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시작되었는지, 지난 25년간 어떻게 지속되었는지, 혹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제 이십 년을 넘어선 우리나라 ‘One Book’ 독서운동의 나아갈 길에 대한 함의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Seattle Reads’라는 개별 ‘One Book’ 프로그램의 사례연구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eattle Reads’의 지난 25년간 목표, 선정 책들의 특성 및 주요 행사와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One Book’ 독서운동의 현황 및 지향점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ne Book’ 관련 학술논문을 검토하였고, ‘Seattle Reads’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인 시애틀 공공도서관을 비롯하여 시애틀 지역 언론, 커뮤니티 기관 및 단체들의 보도자료, 잡지, 신문기사 및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NEA Big Read’,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등 ‘One Book’ 관련 주요 기관, 단체 및 프로그램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 및 문헌 조사에 기초하여, 2023년 기준, ‘Seattle Reads’의 진행 및 평가 등에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였고, 선정된 책들의 서지정보와 주제 등은 미국의회

도서관 OPAC, OCLC의 WorldCat 등에서 확인하였다.

2. 선행연구

지난 1998년 ‘Seattle Reads’의 출범 이후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One Book’ 독서운동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으로서 이룬 성과에 주목한 몇몇 연구(Fuller & Sedo, 2004; Harder, Howard, & Sedo, 2015; University of Birmingham, 2006)가 수행되었으나, 최근 해외에서 이루어진 ‘One Book’ 독서운동 관련 학술 연구는 눈에 띄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이용재(2006; 2008), 조찬식(2013), 우윤희와 김종성(2014), 윤유라(2017), 이국환(2018), 오세란(2019), 장덕현(2022) 등이 국내·외 ‘One Book’ 독서운동의 일반적 특성 및 부산, 청주, 김해 등지에서 진행된 주요한 ‘One Book’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난 5년 사이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들만 살펴보면, 오세란(2019)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36개 ‘One Book’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아동·청소년도서의 선정 현황을 분석하고, 동화 위주이며 2015년부터 작가와 작품이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아동도서 선정과 문학 및 비문학 교양서를 선호하며 소수의 작가와 작품에 집중되는 청소년도서 선정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선정된 아동·청소년책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고, 그 책들을 읽는 ‘One Book’ 프로그램들 자체의 활동 등은 다루지 않았다. 장덕현(2022)은 2004년 김중미

작가의 『팽이부리말』을 선정하면서 출범한 ‘원북 원부산’의 2021년까지 성과를 분석하여, “사회적 독서와 독서공동체 확산, 독서환경 조성, 시민주도형 독서문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독서 모형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다만 매년 책의 선정과정에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거나 문제의식이 있는 책의 선정 어려움, 베스트셀러나 저명작가 책으로의 치우침,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협업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한편 윤정옥은 2003년 국내 ‘One Book’ 독서운동의 도입 시부터 여러 편의 관련 연구를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미국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20년의 성과 및 선정 책 분석(2017), ‘The Big Read’ 독서 이니셔티브 10년의 성과 및 선정 책 분석(2018), 2006년부터 진행된 ‘책 읽는 청주’의 현황 분석(2021a) 및 국내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선정 책 분석(2022)을 수행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시·도 수준에서 진행된 57개 ‘One Book’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선정 책과 주요한 행사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2021b). 이 연구는 국내 주요한 ‘One Book’ 프로그램의 책 선정기준, 선정 책의 명단 및 최근 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 및 기술하였으나, 일부 오류와 누락이 있으며, 국내 ‘One Book’ 독서운동의 특성과 지향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서산시의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등 몇몇 국내 ‘One Book’ 프로그램들이 이십년 가까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개별 ‘One Book’ 프로그램의 심층적 사례연구의 수행이 기대되는 바이다.

3. 'Seattle Reads'의 현황

3.1 'Seattle Reads'의 배경

'Seattle Reads'는 1998년 5월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시에서 Seattle Public Library의 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이 주관하는 지역사회 독서운동으로서 '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출범하였다. 'Seattle Reads'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Seattle Reads'는 사람들이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도록 권장하는 도시 전체의 도서 그룹(city-wide book group)이다. 이것은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문학작품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모든 사람이 선정된 책을 읽고, 도서토론에 합류하거나 선정된 작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참여하도록 초대된다(SPL, 2019a).”

처음부터 'Seattle Reads'는 “광범위한 청중에게, 즉 확실한 도서애호가로부터 아직까지 책과 독서는 자기들 삶에 기본적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이를 위해 'Seattle Reads'는 “같은 책을 읽는다는 공유된 기초”를 통해서 사람들 간 관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한편,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에 노출될 수 있는 고유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을 선언했다(SPL, 2021a). 'Seattle Reads'의 공동창안자인 당시 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 디렉터인

Nancy Pearl은 “다른 인종적 배경, 경제적 수준 혹은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 중요한 생각을 토론하는 귀중한 몇 안 되는 기회들이 있다”고 하였고(Dayton Public Library, 2021), 'Seattle Reads'는 바로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다.

시애틀 지역신문인 *The Seattle Times*의 'Seattle Reads' 25주년 관련 기사에 따르면, 당시 Pearl과 함께 'Seattle Reads'를 시작했던 Chris Higashi는 2010년 TED Talk에서 독서가 공유될 때 어떻게 더 풍성해지는지를 강조하며, “우리가 모두 같은 책을 읽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모두 다른 책을 읽는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독서에 개인적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장소 및 사건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스토리와 대화에 목말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eattle Times, 2023). 이보다 앞선 시기에 Higashi는 'Seattle Reads'가 도서관 문학 프로그램에서 영화, 연극, 뮤지컬, 역사전시회 같은 다양한 예술 활동을 포함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진화하였고, 시애틀의 문화적, 인종적 커뮤니티로 뻗어 나가며, 그 아이디어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Rogers, 2007).

'Seattle Reads'가 이처럼 제시한 한 권의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하며, 생각을 나누는 아이디어는 시카고 시와 시카고 공공도서관(Chicago Public Library)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이들이 2001년 시작한 'One Book, One Chicago(이하 OBOC라 부름)'를 통해 미국 전역의 크고 작은 다른 지역사회들 및 호주, 영국, 한국에도 그 영향이 퍼져나간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Dempsey, 2009).

3.2 ‘Seattle Reads’의 책

3.2.1 책의 선정기준

‘Seattle Reads’이 그 역사적인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One Book’ 독서운동에서는 무엇보다 함께 읽을 한 권의 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Seattle Reads’가 첫해인 1998년부터 지금까지 선정한 책들을 보면, 매우 일관성 있는 지향점을 볼 수 있다. 원래 ‘Seattle Reads’는 Wallers Readers Digest 기금이 다양한 문화와 인종적 배경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성한 ‘Reading Across the Map’이라는 프로젝트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시애틀이라는 커다란 도시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를 잘 알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Seattle Reads’는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배경을 가진 작가가 저술한 한 권의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상대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서로 관계를 만들어 가며, 통합에까지 이르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Seattle Reads’를 통해 독서와 토론, 더 나아가서는 커뮤니티의 이해와 통합을 지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Seattle Reads’는 이러한 지향점을 갖고 있음에 따라, 책의 선정기준에 작가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선정되는 책들의 작가는 그러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eattle Reads’에서 처음에 제시된 책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체적인 작품이 있는 주요한 작가

- 시애틀에서 행하는 여러 행사에서 독자와 토론에 참가할 용의가 있는 작가
- 작품은 뛰어나면서도 토론할 수 있는 책
- 독자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삶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잘 발달된 등장인물이 있는 책(윤정옥, 2013b, 143).

이러한 책 선정기준과 더불어 도서관이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카피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엽가본(paperback)으로 입수 가능하며, 이북, 오디오북, 대형활자본 및 가능하면 점자책 등 다양한 포맷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또한 특별히 시애틀 지역사회에 구체적으로 관련된 주제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대용을 다룰 것이 기대되었다(Seattle Times, 2023). 이런 기준에 따라 1998년부터 2023년까지 ‘Seattle Reads’에서 선정된 책들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에는 발행처, 발행연도와 더불어 국내 번역서가 있을 경우, 그 표제가 포함되어 있다:

- 1998년: *The Sweet Hereafter* (Russell Banks) (HarperCollins, 1991. 달콤한 내세)
- 1999년: *A Lesson Before Dying* (Ernest Gaines) (Vintage Books, 1994. 죽음 앞의 교훈)
- 2001년: *Fooling with Words: A Celebration of Poets and Their Craft* (Bill Moyers) (Morrow, 1999)
- 2002년: *Wild Life* (Molly Gloss) (Mariner Books, 2001)
- 2003년: *A Gesture Life* (Chang-rae Lee) (Riverhead Books, 1999. 제스처 라이프, 척하는 삶)

- 2004년: Seattle Reads Isabel Allende: 2004년에는 Allende의 여러 작품을 읽음: *My Invented Country: A Nostalgic Journey Through Chile* (HarperCollins, 2003); *City of the Beasts* (HarperCollins, 2002); *Paula* (HarperCollins, 1995); *The Infinite Plan* (HarperCollins, 1993); *The Stories of Eva Luna* (Atheneum, 1991); *Eva Luna* (Knopf, 1988); *The House of the Spirits* (Knopf, 1985)
- 2005년: *When the Emperor Was Divine* (Julie Otsuka) (Anchor Books, 2002)
- 2006년: *Persepolis* (Marjane Satrapi) (Pantheon Books, 2003, 페르세폴리스)
- 2007년: *The Namesake* (Jhumpa Lahiri) (Mariner Books, 2003, 이름 뒤에 숨은 사랑)
- 2008년: *The Beautiful Things That Heaven Bears* (Dinaw Mengestu) (Riverhead Books, 2007)
- 2009년: *My Jim* (Nancy Rawles) (Three Rivers Press, 2005)
- 2010년: *Secret Son* (Laila Lalami) (Algonquin Books, 2009)
- 2011년: *Little Bee* (Chris Cleave) (Simon and Schuster, 2009, 리틀 비)
- 2012년: *The Submission* (Amy Waldman) (Farrar, Straus and Giroux, 2011)
- 2013년: *Stories for Boys* (Gregory Martin) (Hawthorne Books, 2012)
- 2014년: *For All of Us, One Today: An Inaugural Poet's Journey* (Richard Blanco) (Beacon Press, 2013)
- 2015년: *The Painter* (Peter Heller) (Vintage Books, 2015)
- 2016년: *We Are All Completely Beside Ourselves* (Karen Joy Fowler) (Plume Books, 2013, 우리는 누구나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 2017년: *The Turner House* (Angela Flournoy) (Mariner Books, 2016, 터너 하우스)
- 2018년: *Homegoing* (Yaa Gyasi) (Vintage Books, 2017, 밤불의 딸들)
- 2019년: *The Best We Could Do* (Thi Bui) (Abrams Books, 2017, 우리가 했던 최고의 선택)
- 2020년: *There There* (Tommy Orange) (Vintage, 2019, 데어 데어)
- 2021년: *The Vanishing Half* (Brit Bennett) (Riverhead Books, 2020, 사라진 반쪽)
- 2022년: *The House of Broken Angels* (Luis Alberto Urrea) (Back Bay Books, 2019, 빅 엔젤의 마지막 토요일)
- 2023년: *The Swimmers* (Julie Otsuka) (Alfred A. Knopf, 2023)

'Seattle Reads'는 상기한 책들의 목록에서 보는 것처럼, 1998년 처음부터 한 권의 책을 선정하였고, 행사를 진행하지 않은 2000년을 제외하고 2023년까지 매년 한 권의 책을 선정하고 있다. 다만 2004년 이름을 'Seattle Reads'로 바꾸면서, 한 권의 책 대신 한 사람의 작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적이 있으나, 2005년부터 다시 한 권의 책을 선정하는 이전의 방식으로 회귀하였다. 2004년에는 칠레 출신 작가 Isabel Allende를 대표작가로 선정하고 *City of the Beasts* 등 7권의 책을 함께 읽었다. 다음 해인 2005년부터 한 권의 책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Seattle Reads'라는 이름은 이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Seattle Reads’에서 선정된 책들은 대부분 발행이 오래지 않은 신간이다. 최초의 ‘One Book’인 *The Sweet Hereafter*는 1991년 발행된 책이고, 1999년의 *A Lesson Before Dying*도 당시 시점으로는 발행된 지 5년 된 책이어서 신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2004년 선정된 Allende의 책들 7권 가운데 *Eva Luna* (Knopf, 1988), *The House of the Spirits* (Knopf, 1985)와 같이 1980년대 발행된 책들도 있으나, 그 이전과 이후에 선정된 다른 책들은 대부분 발행된 지 1-3년 정도 된 신간이다. 특별히 2009년의 *My Jim*, 2015년의 *The Painter*, 2023년의 *The Swimmers*는 발행된 그해에 선정된 최신간들이다.

‘Seattle Reads’에서는 처음부터 책 선정 시 지역에서 작가를 초대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활동하는 생존 작가의 신작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시애틀이라는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자 했던 목표에 따라, 선정된 책들은 대부분 작가의 다양한 인종적 및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정된 책들과 그 작가들을 보면, ‘Seattle Reads’이 25년 동안 내내 유지해온 일관적인 지향점을 알 수 있다.

3.2.2 작가들의 배경

‘Seattle Reads’에서 그동안 선정된 책 작가들의 인종적 및 문화적 배경에는 다양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전 세계의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미국 사회의 문학계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또한 다양한 인종적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 동안 ‘Seattle Reads’에서 선정된 책의 작가들이 보여주는 다양성은 매우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Seattle Reads’ 선정 책의 작가들 가운데 2003년 *A Gesture Life*의 이창래(Chang-rae Lee)는 한국계이며, 2004년 선정작가 Isabel Allende는 칠레 출신이다. 2006년 *Persepolis*의 Marjane Satrapi는 이란계, 2007년 *The Namesake*의 Jhumpa Lahiri는 인도계, 2008년 *The Beautiful Things That Heaven Bears*의 Dinaw Mengestu는 에티오피아계, 2010년 *Secret Son*의 Laila Lalami는 모로코계 작가이다. 2014년 *For All of Us, One Today*의 Richard Blanco는 라틴 아메리카계, 2017년 *The Turner House*의 Angela Flournoy와 2021년 *The Vanishing Half*의 Brit Bennett는 둘 다 노동자 계층 아프리카계, 2018년 *Homegoing*의 Yaa Gyasi는 가나계, 2019년 *The Best We Could Do*의 Thi Bui는 베트남계, 2020년 *There There*의 Tommy Orange는 미국 원주민계 작가이다. 2022년 선정된 *The House of Broken Angels*의 작가인 Luis Alberto Urrea는 멕시코 부친과 미국계 모친 사이에 티후아나에서 태어나, 현재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으며(SPL, 2023b), 2005년 *When the Emperor Was Divine*으로 선정되었고, 2023년 *The Swimmers*로 다시 선정된 Julie Otsuka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어난 일본계 작가이다(SPL 2023a). 2009년 *My Jim*의 Nancy Rawles와 2012년 *The Submission*의 Amy Waldman는 캘리포니아 주 출신이고, 2011년 *Little Bee*의 Chris Cleave는 영국 출신이지만 카메룬에

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작가이다.

이처럼 'Seattle Reads'의 작가들은 미국에서 태어났든 다른 나라에서 이주하였든 다양한 인종적 및 민족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책들의 주제 또한 이들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문화적 다양성을 매우 선명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Seattle Reads'이 'Reading Across the Map' 프로젝트로 출범하였던 첫해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기조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3 책의 주제

'Seattle Reads'에서 선정된 책들은 종종 '도발적(provocative)' 주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1998년 'Seattle Reads'에서 최초로 선정된 *The Sweet Hereafter*는 눈길의 버스사고로 마을 어린이들이 사망하게 된 사건과 생존자들이 수용과 비난이라는 문제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에 관한 스토리로, 문화적 다양성보다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시각의 다양성을 다루고 있다. 이어서 1999년에 선정된 *A Lesson Before Dying*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으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은 흑인 청년 제퍼슨과 그가 존엄성을 갖고 죽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파견된 선생 그랜트 위긴스에 관한 이야기이다.

2006년의 *Persepolis*는 이슬람혁명 시기 이란에서의 삶, 2007년의 *The Namesake*는 인도 캘커타에서 전통적 삶을 살던 가족이 미국인으로 변신하는 과정, 2010년의 *Secret Son*은 카사블랑카의 슬럼에서 성장한 젊은이의 스토리, 2011년 *Little Bee*는 영국의 난민캠프에 이 년 동안 수용되었던 나이지리안 난민의 삶 등을 각각 그리고 있다. 2012년 *The Submission*은

9/11 테러 희생자 기념물 건축과 무슬림 건축가, 2013년 *Stories for Boys*는 가족 내 성폭행과 성소수자, 2014년 *For All of Us, One Today*는 라틴계 성소수자, 2016년의 *We Are All Completely Beside Ourselves*는 침팬지를 딸처럼 키우는 심리학자 가족 등을 다루고 있다. 2018년 선정된 *Homegoing*은 18세기 가나에서 태어났지만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성장한 두 자매의 평행한 인생경로를 따라가는 소설이다. 한 사람은 영국인과 결혼해서 안락한 삶을 살지만, 다른 한 사람은 마을의 침략자에게 납치되어 노예가 된다. 두 개의 대륙에서 여덟 세대를 거쳐 살아간 이들의 후손을 통해 "노예제도의 잔혹한 유산과 함께 미국의 영혼에 새겨진 감금의 기억"을 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의 강렬함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등장인물들의 스토리를 따라가며, 'Seattle Reads'가 처음부터 지향했던 토론하기 좋은 '도발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Seattle Reads'에서 선정된 책들은 이야기거리가 많은 책들이다.

3.3 독서토론 가이드북

'One Book' 독서운동은 기본적으로 한 권의 책에서 시작하여, 그 책의 작가 및 주제들에 대하여 이어지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Seattle Reads'는 이를 위해 매년 선정된 책들에 대해 시애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독서토론 가이드북을 pdf 파일로 제공하며, 관련된 도서관 내부 및 외부 자원에 대한 링크를 제공한다. 'Seattle Reads'의 독서토론 가이드북은 맨 앞에 작가에 대한 전기적 정보, 책에 관한 역사적

배경 등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10여 개 정도의 토론 질문을 제시하여 전문가가 아닌 독자 누구라도 자유롭게 독서토론 그룹을 구성하고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안내서로 참고할 수 있다. 이 독서토론 가이드북은 초기에 ‘연장통(toolbox)’이라고 불렸으며, 이후 많은 다른 ‘One Book’ 프로그램들에서도 참조하는 모형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Seattle Reads’의 독서토론 가이드북이 중요한 점은 시애틀 도서관 사서들이 선정 책과 관련된 소설 및 비소설 책들을 추천하고, 종종 영화, 다큐멘터리, 그래픽 노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함으로써, 독서 및 주제에 대한 관심 확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추천하는 책들이나 정보원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Seattle Reads’ 25주년을 기념하여 선정된 *The Swimmers*는 등장인물인 엘리스라는 노인이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 오히려 어린 시절 전시에 집을 떠나 캠프에 수용되었던 과거의 기억에 빠져들고, 그녀와 소원해졌던 딸과의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The Swimmers*의 독서토론 가이드북에서 사서들은 이 책이 “관계, 의무 및 삶의 경험이라는 복잡한 거미줄”을 끌어낸다고 평가하며, 여기에서 다루어진 ‘치매와 돌봄, 지역사회 공간의 역할, 제2차 세계대전 시 일본인 억류, 수영, 및 모녀 관계’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소설 및 비소설 책들을 추천하였다. 또한 특별히 Greenwood Senior Center라는 지역사회 파트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캘리포니아, 유타, 아칸소, 하와이 등 여러 주에서 일본계 미국인들을 소개하여 캠프에 수용하였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책들을 추

천하고 있다(SPL, 2023a). *The Swimmers*라는 책 자체와 더불어 독서토론 가이드북이 시애틀 시민들로 하여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자이자 피해자로서의 일본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능도 하게 되었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이자 가해자로서의 일본에 대한 문제의식은 함께 다루지 않는다는 점은 이 독서토론 가이드북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매년은 아니지만 책에 따라 특별히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의 독자들을 고려했을 때, 독서토론 가이드북은 이중언어로 제작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2년 *The House of Broken Angels* 가이드북, 2005년 Isabel Allende 가이드북, 2007년 *The Namesake* 가이드북 등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작되었으며, 2019년 *The Best We Could Do*의 가이드북은 영어와 베트남어로 제작되었다. 이처럼 독서토론 가이드북은 매년 선정된 책과 관련하여 책과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특정한 잠재적 독자층의 요구를 반영하고, 추천 책을 통해 독서의 지평을 넓혀가는 도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3.4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는 처음부터 ‘Seattle Reads’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Seattle Reads’는 매년 책을 선정하고 5월을 전후하여 작가 초청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독서 및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한 주제와 관련된 여러 행사를 통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지역사회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Seattle Reads' 이후 지금까지 거의 모든 'One Book'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기본적 전형이 되었다. Higashi가 2016년 은퇴한 후 'Seattle Reads'의 책임을 맡고 있는 Stesha Brandon은 'Seattle Reads'에서 책을 선정하고, 작가가 방문하고, 독자들이 모임으로써 "사람들이 함께 와서 프로그램을 통해 문학에 참여하고, 그것이 지역사회-구축 및 지역사회-변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Seattle Times, 2023).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책을 읽고, 작가 및 다른 독자들과 더불어 토론하고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Seattle Reads'에서는 도서관이 주관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들에서도 토론 및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2023년 'Seattle Reads' 선정 책의 주제에 '치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서관은 지역의 알츠하이머 환자 및 가족들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The Memory Hub에서 독서토론을 주제하고, 치매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University of Washington 브레인 센터 등 지역사회 병원, 시민단체, 미술관 노인예술 프로그램 등을 커뮤니티 파트너로 하였고, 작가는 시애틀 방문 시 노인센터 두 곳에서도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다(SPL, 2019a).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서토론 가이드북에서 일본계 커뮤니티 등 다양한 지역사회 파트너들은 여성, 커뮤니티 활동, 치매, 일본이민자 역사 등에 관련된 주제 책을 추천함으로써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2019년 선정된 *The Best We Could Do*는 베트남계 작가 Thi Bui가 1970년대 베트남전 폐망 후 탈출하여 미국에 정착

하는 과정에서 한 가족이 새로운 삶을 일구면서 맞닥뜨린 고난을 기록한 책이다(SPL, 2019b). 작가는 2019년 4월에 시애틀을 방문하여 시애틀 중앙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독자들과 만남을 다섯 차례 가졌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에서 4월부터 5월 사이 독서그룹 토론이 모두 26차례 열렸고, 베트남계 시민단체인 Vietnam Friendship Association 및 North African American Museum과 독서그룹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이때 책의 배포와 프로그램 기획 등에 Vietnamese Friendship Associ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outheast Asia Center and History Department 등 지역사회 기관,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연대하여 지역 베트남계 시민과 단체들의 참여를 이끌고자 하였다. 번역자 및 저자와 협력하여 책의 발췌번역본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노력은 2004년 이래 처음으로 비영어권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200여 명의 시민들이 저자 방문과 대중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2019년 1월부터 6월 사이 3,000회 이상 책이 대출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동일 기간 대출횟수의 세배에 달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해의 'Seattle Reads' 참여자들 중 절반 정도는 처음 참여하는 것이었고, 이들 가운데 60%는 자신을 아시아계 등 유색인종임을 밝혔다(SPL, 2020a).

시애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Seattle Reads'의 온·오프라인 행사는 1998년 출범 시부터 The Seattle Public Library Foundation과 The Wallace Foundation이 후원하고 있으며,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만 Seattle City of Literature, The Seattle

Times, KUOW 94.9 Public Radio, Penguin Random House, Vintage Books 등 출판사, 언론사, 서점 등이 책 제공, 방송 송출 등 미디어 후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Seattle Reads’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The Seattle Public Library Foundation은 이처럼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연대하는 행사들은 지역사회 전역에서 스토리텔링의 힘을 입증하는 적절한 방법이며, ‘Seattle Reads’가 지역사회에서 사랑받으며, 전 세계가 따라 하게 된 이유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Seattle Public Library Foundation, 2023).

3.5 코로나 19 팬데믹과 가상 프로그램

코로나 19가 전 세계로 확산된 2020년과 2021년에 ‘Seattle Reads’는 대부분 행사를 가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2020년 ‘Seattle Reads’는 선정 책인 *There There*와 관련된 행사를 모두 가상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There There*는 *New York Times* 베스트셀러 소설로서 아직 인식하지 못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미국 원주민 출신 12명의 등장 인물을 통해 “도시에 사는 원주민들의 근경을 말한다”고 평가되었다. 2020년 10월 ‘Seattle Reads’에서는 작가와 Seattle University의 Indigenous Peoples Institute 디렉터인 Dr. Christina Roberts의 대담을 진행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비록 소수이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시애틀 공공도서관 Facebook에서 스트리밍을 진행하였다. 그밖에도 10월 중 다른 미국 원주민 작가들과의 만남, 록밴드 연주, 스토리 작가들과의 토론 등을 온라인으

로 진행하였고, 특별히 원주민 샤이니(Shiny) 부족 스토리를 다룬 *The Whale Child*의 남매 작가를 초청하여 7세-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상 대담을 진행하였다(SPL, 2020b).

2021년 선정 책 *The Vanishing Half*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포괄하는 시기에 미국 남부 흑인 커뮤니티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책은 “개인의 결정, 욕망 및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라지지 않은 과거의 영향을 다루고, 사람들이 때때로 자신의 출신과 다른 무엇인가로 살아가도록 이끈다고 느끼는 다양한 이유와 영역을 탐구한다”고 평가되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흑인여성인 작가 Brit Bennett는 10월 6일 시애틀을 방문하고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SPL, 2021b). 매년 ‘Seattle Reads’는 선정된 책과 관련하여 지역 미술가나 공연예술자들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초청하는데, 2021년에는 콜라주 및 북 아티스트인 Lisa Myers Bulmash에게 *The Vanishing Half*에 반영된 흑인여성들의 삶과 관련된 주제로 창작을 의뢰하였고, 이 주제에 기반한 작품 ‘See Hear Speak’에 대한 대담을 유튜브로 공개하였다(SPL, 2021d). 또한 ‘African-American Writers’ Alliance Showcase’를 진행하여 African-American Writers’ Alliance의 시와 산문을 축하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공개하였다(SPL, 2021c). 이러한 행사를 위해 2021년 ‘Seattle Reads’는 African American Writers’ Alliance, LANGSTON, Northwest African American Museum 및 Wa Na Wari 등 흑인 커뮤니티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파트너가 되어 진행하였다(SPL, 2021b). 이처럼 코로나 19의 시기에 작가와의 만남 및

독서토론 같은 ‘Seattle Reads’의 전형적인 행사들을 대면으로 진행하진 않았으나, 가상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적극 대안을 모색하였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시기에도 ‘Seattle Reads’는 멈추지 않았다.

‘Seattle Reads’는 이전에도 유튜브, 페이스북, 팟캐스트 등 다양한 매체와 채널, SNS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었고, 코로나 19의 시기에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유튜브에서는 The Seattle Public Library 공식 채널¹⁾로 2023년 10월 기준 238개 동영상을 공개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에서는 ‘Seattle Reads’ 관련 사진, 동영상 등은 팔로워가 5.7만에 이르는 The Seattle Public Library의 계정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는 라이브로 앞서 언급한 작가와의 대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Seattle Reads Podcast’는 저자와의 대화, 독서토론 및 기타 행사들을 녹음하여 공개하는데, 2023년 10월 기준 지난 2006년 6월 *Persepolis*의 작가 Satrapi의 타운홀 방문을 비롯하여 2018년 작가 Thi Bui와의 미팅 등 21개의 오디오 파일 및 일부 대담원고 pdf 파일도 공개하고 있다.

4. ‘Seattle Reads’의 영향과 평가

4.1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평가

‘Seattle Reads’에 대한 평가는 이미 25년 전

‘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 전역의 크고 작은 600여 개 지역사회에서 ‘One Book’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고, 이들이 자신들의 모범으로 ‘Seattle Reads’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 영향력은 평가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Seattle Reads’에 대한 외부적 평가가 ‘One Book’ 독서운동의 확산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면, 내부적 평가는 시애틀에서 ‘Seattle Reads’가 25년 지속되어 왔고, 시애틀 공공도서관이 “도서관의 선도적 시 전체 독서그룹(Library’s pioneering citywide book group)”이라고 부르는 핵심적 도서관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이 자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문화적 및 시민참여에 대한 영향력 평가’에서는 ‘Seattle Reads’는 계속해서 성장하며 시민들에게도 긍정적 평가를 받음을 보여주고 있다. ‘Seattle Reads’의 지난 25년간 성과를 다 알기는 어렵지만, 현재 공개되어 있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향력 평가’에 따르면, ‘Seattle Reads’ 행사 참여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며, 참여자들의 긍정적 평가도 증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2020년 영향력 평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 대면 행사가 어려웠던 2020년 10월에 가상으로 진행된 선정도서 *There There*의 작가인 Tommy Orange와의 행사에 600여 명이 참가한 것을 보고했다. 작가와 Seattle University의 Indigenous Peoples Institute 디렉터인 Dr. Christina Roberts의 대

1) Seattle Public Library. <https://www.youtube.com/@SeattlePublicLibrary>

담은 방영 이후 수천 명이 추가로 시청하였다. 2020년 서베이에서 행사 참여자들의 70%는 ‘Seattle Reads’를 10점 만점에 9점 이상으로 평가했다(SPL, 2021e). 그 전해인 ‘2019년 영향력 평가’에 따르면, 베트남계 작가 Thi Bui의 *The Best We Could Do*를 선정했던 2019년 ‘Seattle Reads’에서는 1,200여 명의 시민들이 책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했고, 도서관은 1,500여 권의 책을 북클럽 키트로 27개 장소 및 베트남계와 아시아태평양계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배포했다. 도서관에서는 이 책이 2,700여 회 대출되었고, 서베이에 참여한 300여 명은 이 프로그램을 10점 만점에 8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서베이 참여자들 가운데 거의 50%의 응답자는 이전에 ‘Seattle Reads’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SPL, 2020c).

‘2018년 영향력 평가’에 따르면, 그해 20주년을 기념한 ‘Seattle Reads’에서 Yaa Gyasi의 *Homegoing*을 읽으면서 관련된 행사에 1,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 중 92%가 이 프로그램을 10점 만점에 8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SPL, 2019c). Angela Flournoy의 *The Turner House*를 선정했던 2017년 ‘Seattle Reads’ 행사에는 9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커뮤니티 파트너들과 적극적 아웃리치를 진행함으로써 전년도보다 프로그램 참여자가 55% 이상 늘었다고 평가되었다. 이때 참여자들의 80%는 프로그램을 10점 만점에 8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SPL, 2018).

‘영향력 평가’가 보고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참여자 수는 900명에서 1,200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은 대면참여자 대신 가상참여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관심을 받게 되었다. ‘Seattle Reads’의 문화적 및 시민참여 영향력을 단순한 대출 건수, 참여자 수치나 서베이 결과 등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역의 아시아계 등 소수민족 커뮤니티 등에 적극적 아웃리치를 통한 참여 확대 등의 질적인 변화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2 ‘One Book’ 독서운동의 확산

앞 절에서 언급한 대로, ‘Seattle Reads’가 1998년 출범한 이래, 1999년 캔사스주 Lawrence의 ‘Read Across Lawrence’ 등 몇몇 지역사회에서 ‘One Book’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2001년 시카고의 ‘One Book, One Chicago’를 계기로 미국 전역 및 국제적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 등 다른 나라까지도 빠르게 확산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소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미국 의회도서관 도서센터(LC Center for the Book)의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사이트(Library of Congress, 2017)에서 2017년까지 미국에서 크고 작은 지역사회에서 600여 개 ‘One Book’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윤정옥, 2021, 17-8). 그러나 2023년 기준, 센터는 더 이상 ‘One Book’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2021년까지도 접근 가능했던 이 사이트를 이제는 공개하지 않아 전체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One Book’ 프로그램들 가운데 일부는 중단되었을 것이나, 일찍이 시작된 개별 ‘One Book’ 프로그램의 사례를 개별적으로 추적해 보면, 다수가 아직도 꾸준히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근래 새롭게 시작된 ‘One Book’ 프로그램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Seattle Reads'에 뒤이어 바로 캔사스 주 로렌스 공공도서관(Lawrence Public Library)이 1999년 시작한 'Read Across Lawrence'는 2022년까지도 매년 진행되었다. 'Read Across Lawrence'는 "리터러시를 촉진하고, 공동체를 조장하며, 세대 간, 다문화 간 및 시민의식을 가진 교육적 토론의 공동 기초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며, "정말로 재미 있고 허물없는 방식으로 한 권의 책에서 가장 많은 것을 끄집어내자"고 하였다. 'Read Across Lawrence'는 처음부터 매년 성인 독자들을 위하여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2012년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책들도 선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이들 연령층에도 맞게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가, 2022년에 다시 성인 독자들만을 위한 'One Book' 프로그램으로 회귀하면서 중국계 작가 Charles Yu의 *Interior Chinatown*을 선정하였다(Lawrence Public Library, 2023). 2023년 진행은 확인할 수 없지만, 향후 지속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01년 아칸소 주에서 시작된 'One Book' 프로그램인 'If All Arkansas Read the Same Book(IAARTSB)'은 주 전역의 모든 유형 도서관들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장려하고 독서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연례 독서 프로그램이다(Arkansas State Librar, 2023). 이들은 2001년 Terry Kay의 *To Dance with the White Dog*을 읽으면서 첫해를 시작하였고, 2008년, 2011년 및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진행하며, 2023년 아칸소 주 출신 작가인 Ayana Gray의 *Beasts of Prey* 시리즈를 읽고 있다. IAARTSB

는 'Seattle Reads'와 동일한 목표 및 'One Book'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지금까지 꾸준한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칸소 주의 IAARTSB와 더불어 2001년 시작된 대표적 'One Book' 프로그램이 일리노이 주 시카고 시의 'One Book, One Chicago(OBOC)'이다. OBOC가 오늘날 이 독서운동이 'One Book, One City' 혹은 'One Book, One Community'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고, 미국 안팎으로 빠르게 확산된 계기를 제공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OBOC에서 첫 번째 책으로 선정했던 Harper Lee의 *To Kill a Mockingbird*는 이후 2017년 기준, 미국 전역의 87개 'One Book'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어, 가장 선호된 'One Book'이 되기도 하였다(윤정옥, 2021, 40). 2001년 이후 매년 지속되는 OBOC는 2021년 시행 20주년을 기념하였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대대적 외부행사를 치르지는 않았다. 2023년에는 'Seattle Reads'에서 2020년에 선정한 바 있는 Tommy Orange의 *There There*를 선정하여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CPL, 2023). OBOC는 한 권의 책과 함께 '하나의 주제(One Theme)'를 선정하는 등 진행방식의 변화를 주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인 'One Book'의 기초는 충실하게 유지하고 있다. 'Seattle Reads'에서 시작된 조용한 움직임이 OBOC를 통해 역동적 도약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 계속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Seattle Reads'의 성공은 시애틀 시가 소재한 워싱턴 주의 Washington State Library가 주전역 리터러시 및 지역문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한 ‘Washington Reads’에도 영감을 주었다(Lanksbury, 2012). Washington State Library는 2003년부터 National Book Festival에 참여하면서 워싱턴 주에 관한 책이나 워싱턴주를 배경으로 하는 책을 한 권 선정하여 ‘Washington Reads’를 진행하며, 독서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도서관, 학교 및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Between the Lines, Washington Reads Blog’를 운영하며 도서관직원들이 추천하는 책들의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하여, 북서부 태평양 지역을 다루는 신간 및 구간, 소설 및 비소설 작품들 중 강한 흥미를 이끄는 읽을 거리를 안내한다. 블로그 포스트에는 이 책들의 소장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자원이나 시각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책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Washington State Library, 2023). 워싱턴 주의 한 도시인 시애틀에서 시작된 ‘One Book’ 독서운동 모형을 참조한 활동이 워싱턴 주 전역에서 확장되어 진행되는 것이다.

메릴랜드 주도 2008년부터 ‘One Maryland One Book(OMOB)’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Maryland Center for the Book 주관으로 매년 그해의 주제를 정하고 일정한 책 선정기준에 따라 일반 대중, 교육계, 사서, 학교, 북클럽 및 다른 파트너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10권의 책을 선정한다. 선정위원회가 이들 가운데 3권을 선정하여 최종 한 권의 책을 결정하고, 작가 초청 등 다양한 행사를 메릴랜드 주 전역에서 진행한다. 2023년에는 ‘연결(connection)’이라는 주제에 기반하여 Tommy Orange의 *There There*를 선정하였다. 책 선정기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소설이나 비소설 둘 다 가능하고, 350페이지

지 이하 길이, 엽가본이나 저렴한 가격의 인쇄본, 오디오, 전자책, 가능하면 대형활자본, 영화, 번역본 등이 나왔으며, 매년 메릴랜드 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에 대한 활기찬 토론을 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배경 및 독서수준의 광범한 독자들을 이끌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 아울러 고등학생 이상의 성인 독자들에게 적합한 책이어야 한다(Maryland Humanities, 2023). OMOB의 기본적 진행방식은 ‘Seattle Reads’의 전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오하이오 주 해밀턴 카운티는 비교적 최근인 2017년 ‘One City, One Book Hamilton(OCOB)’을 출범하였다. 이들은 독서를 통해서 카운티의 17개 마을 주민들을 함께 모을 완전한 기회라고 하였고, OCOB를 통해 도서관, 학교, 지역 비즈니스, 커피숍 등 해밀턴 전역에 독서에 관한 열띤 대화가 다시 불붙을 것을 기대하였다. 이들은 “책 읽기와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평범성을 강조하는 신중한 토론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대화와 활동을 만들어내기 희망한다”고 하면서, ‘Seattle Reads’가 채택한 전형적인 ‘One Book’ 프로그램의 형태로서 진행하고 있다. 매년 10월 한 달 동안, 책 이어 읽기, 독서토론, 예술공연 등 행사를 해밀턴 전역에서 진행하고, 자발적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있다(Hamilton County Foundation, 2023). 2023년에는 *New York Times* 베스트셀러인 Bonnie Garmus의 *Lessons in Chemistry*를 선정하고, 10월 한 달 동안 독서토론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작가의 방문과 함께 OCOB를 마무리하였다(Pitman, 2023). 이처럼 지금도 ‘Seattle Reads’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One

Book' 프로그램은 크고 작은 지역 단위로 어딘가에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3 'NEA Big Read'

미국의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가 Arts Midwest와 파트너십으로 추진하는 문학독서 이니셔티브인 'NEA Big Read'가 2006년 'The Big Read(TBR)'이란 이름으로 첫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Seattle Reads'에서 시작된 'One Book' 독서운동의 모형을 채택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NEA Big Read'는 "공유된 독서 경험의 힘을 통해서 우리들의 세계, 우리들의 이웃 및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NEA Big Read, 2023a)는 지향점을 선언하며,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들 주관으로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랜트를 지원하고 있다. 'NEA Big Read'에는 2006년부터 2022/23년까지 1,800여 개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선정되었고, 2,500만 달러 정도가 지원되었으며, 'NEA Big Read' 행사와 활동 등에 참여한 파트너 단체들은 4만여 개에 이른다고 하였다(NEA Big Read, 2023b). 지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604개 지역사회에서 'One Book'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한편, 'NEA Big Read'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745개 지역사회에서 진행되어, 오히려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지역사회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여러 지역사회 'One Book' 프로그램이 'NEA Big Read' 지원금을 받아 이름을 바꾸기도 함으로써, 기존의 'One Book'과 'NEA Big Read'는 동반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윤정옥, 2018, 174).

'NEA Big Read'의 권장도서 목록을 보면 'Seattle Reads'와의 관련성을 더 찾아볼 수 있다. 'NEA Big Read'는 첫 시범사업에서 지역사회들이 읽을 책으로 Harper Lee의 *To Kill a Mockingbird*, Ray Bradbury의 *Fahrenheit 451* 등 4권을 권장도서로 제시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책들을 추가하여 2023년 현재 권장도서 목록에는 모두 75권이 올라와 있다. 이들 가운데 Thi Bui의 *The Best We Could Do* 등 15권은 '현행 권장도서(Active Books)'이고, Julia Alvarez의 *In the Time of the Butterflies* 등 60권은 '이전 권장도서(Archived Books)'이다(NEA Big Read, 2023b). 물론 'NEA Big Read' 그랜트에 지원하는 지역사회는 '현행 권장도서' 및 '이전 권장도서' 75권 중 어떤 책이든 선정할 수 있다.

현재 'NEA Big Read'의 권장도서 목록에는 'Seattle Reads'가 지금까지 선정한 책들 가운데 7권이 포함되어 있다. 1999년 선정도서인 *A Lesson Before Dying*, 2005년의 *When the Emperor Was Divine*, 2007년의 *The Namesake*, 2008년의 *The Beautiful Things That Heaven Bears*, 4권은 '이전 권장도서' 목록에 들어있고, 2018년의 *Homegoing*, 2019년의 *The Best We Could Do*, 2020년의 *There There*, 3권은 '현행 권장도서' 목록에 들어있다.

'NEA Big Read'의 권장도서 목록에는 맨 처음 미국 작가의 소설 4권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후 시, 희곡 등 다양한 장르의 책들 및 러시아, 멕시코, 이집트 등 외국 작가의 작품들도 추가되었다. 이러한 'NEA Big Read'의 변화는 주제 또한 초기엔 "성장, 정의, 관용과 같은 주

제를 강조”하는 것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이민자 등 보다 다양한 미국 내 민족과 문화 경험과 삶을 다룬 진화들로 진화”해 가는 것을 반영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윤정옥, 2018, 174).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전반열에 오른 미국 문학작품을 읽자고 하면서 시작되었던 ‘NEA Big Read’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Seattle Reads’가 초기부터 표방한 다양성의 이해라는 목표에 더 가까워진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Seattle Reads’는 문화적 및 민족적 배경은 다양하더라도 영어로 쓰인 작품을 선정하는 것에 비하여, ‘NEA Big Read’는 다른 언어권 작가들의 번역작품도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서의 범위는 더 넓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미국의 대형출판사인 Penguin Random House는 “리터러시를 촉진하고, 커뮤니티를 생성하며, 성찰을 장려”한다는 목적을 표방한 ‘Common Reads’에서 ‘College & University Reads’, ‘Community Reads’ 및 ‘All-School Reads’로 각각 대학생, 지역사회 및 학교의 독서 프로그램을 위한 책들을 주제별로 추천하고 있다(Penguin Random House, 2023a). 여기에서 The Swimmers가 ‘Seattle Reads’ 25주년에 선정된 책임을 소개하면서, ‘Seattle Reads’가 최초의 ‘One Book’ 프로그램이면서 “독서와 토론을 통해 문학에 대한 참여를 심화시키도록 설계”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Penguin Random House, 2023b). 이른바 ‘One Book’ 독서운동의 원조로서 ‘Seattle Reads’에 대한 평가는 이미 25년 전에 시작되었고, ‘NEA Big Read’와 더불어 지금까지 꾸준히 책이나 독서와 관련된 여러 부문에서 이처럼 계속 관련성이 언급되는 것은 ‘Seattle Reads’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5. 맺음말

지난 1998년 출범하며 ‘One Book, One City’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의 모형을 제시한 ‘Seattle Reads’는 2023년 25주년을 맞이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렇게 지속된 ‘Seattle Reads’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선정한 책들과 관련된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지속성’과 ‘일관성’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Seattle Reads’는 출범 시 선언한 목표와 지향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책의 선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Seattle Reads’는 처음부터 지역사회에서 성인 대중에게 독서와 토론의 즐거움을 확산시키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하였다.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Seattle Reads’에서는 지난 25년 내내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혹은 사회적 배경을 가진 작가들의 책을 계속해서 선정함으로써 이러한 지향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

둘째, ‘Seattle Reads’는 25년 간 성인 독자를 위한 ‘One Book’을 중심으로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일관성’을 보여준다. 물론 2004년 한 권의 책이 아닌, 한 작가의 여러 책을 읽고자 시도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05년 다시 원래의 ‘One Book’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돌아갔고, 지금까지 그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Seattle Reads’는 처음에 지향했던 대로 한 권의 책과 그 주제에 집중한 행사의 경제적 및 효율적 기획이 가능하다.

셋째, 'Seattle Reads'가 상기한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Seattle Reads'는 시애틀 시 산하 시애틀 공공도서관이 주관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이지만, 전적으로 시의 재정이나 시장의 결정 등에만 의지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행사와 활동에 지역사회의 재정 및 인력 지원과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The Seattle Public Library Foundation 등 지역의 도서관, 문화 및 교육 관련 재단, 각종 기관, 전문가단체 등 다양한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물적 및 인적 자원을 지원하고 적극 참여함에 따라, 지역사회 행사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기 때문일 수도 있다.

넷째, 'Seattle Reads'은 지난 25년 동안 2000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계속 진행됨에 따라, 개별 'One Book' 프로그램으로서 '지속성'을 갖는 동시에 'One Book' 독서운동의 원형으로서 가진 영향력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Seattle Reads' 출범 이후 미국에서 600여 개 지역사회에서 'One Book'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2006년부터 시작된 'NEA Big Read'에는 2023년 기준, 누적해서 1,800여 개 지역사회가 참여하였다. 국내에서도 2023년 기준, 60여 개 시·도 단위 지역사회에서 'One Book'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내에서는 'One Book' 프로그램들은 일부는 중단되었지만, 대부분 매년 지속되고 있다. 다만 'NEA Big Read'는 매년 그랜트에 선발된 지역사회들만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개별 지역사회 'One Book'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A Big Read'는 집합적 'One Book' 독서 이니셔티브로서 'Seattle Reads'에서 제

시된 'One Book' 독서운동의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Seattle Reads'가 지난 25년 동안 'One Book' 독서운동의 원형으로서 보여주는 지속성, 일관성, 자율성 및 독립성은 국내 'One Book' 프로그램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국내 대부분 'One Book' 프로그램들이 거의 전적으로 시·군이나 도 단위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의지함에 따라, 종종 지자체장의 의지나 관심에 따라 아예 'One Book'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목표가 변화하거나, 책 선정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윤정옥, 2021a). 특히 처음에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던 'One Book' 프로그램이 어린이, 청소년 등 연령 별로 따로 책을 선정하게 됨으로써 활동의 집중성이 약화되거나 방향이 전환되는 사례가 관찰되기도 한다(윤정옥, 2021a).

사실상 재정 및 인력 자원을 자율적, 독립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국내 도서관 환경에서 'One Book' 프로그램들이 'Seattle Reads'와 같은 수준의 일관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One Book' 프로그램들이 이십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꾸준한 지속성을 보여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Seattle Reads'가 표방한,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는 독서와 토론, 문화의 향유,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국내 'One Book' 프로그램들은 상황의 한계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Seattle Reads'와 국내 'One Book' 프로그램들의 목표와 지향점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함께 관찰하고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오세란 (2019).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아동청소년도서 선정 현황 및 분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4, 103-140. <http://doi.org/10.24993/JKLCY.2019.06.30.103>
- 우윤희, 김종성 (2014). 우리나라 ‘한 도시 한 책’ 운동 선정도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309-336. <https://doi.org/10.16981/kliss.45.4.201412.309>
- 윤유라 (2017). 한국의 대중독서운동 중 ‘한 책’ 운동에 대한 사례연구. 인문학논총(동의대학교), 43(8), 193-215. <https://doi.org/10.21582/TJH.2017.02.43.193>
- 윤정옥 (2013a). 미국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47-68. <https://doi.org/10.16981/kliss.44.3.201309.5>
- 윤정옥 (2013b).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서울: 조은글터.
- 윤정옥 (2017). 미국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20년과 ‘한 책’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45-64. <https://doi.org/10.4275/KSLIS.2017.51.3.045>
- 윤정옥 (2018). ‘The Big Read’ 독서 이니셔티브 10년과 선정 책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159-178. <https://doi.org/10.4275/KSLIS.2018.52.1.159>
- 윤정옥 (2021a). ‘책 읽는 청주’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59-84.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059>
- 윤정옥 (2021b). 한 책, 한 도시, 그리고 우리 도서관.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윤정옥 (2022). 국내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선정 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2), 165-188. <https://doi.org/10.16981/kliss.53.2.202206.165>
- 이국환 (2018). 독서운동으로서 ‘한 책, 한 도시’ 연구: ‘원북원부산’ 운동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72, 81-110. <https://doi.org/10.17842/jsa.2018.72.81>
- 이용재 (2006). 한국 독서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5-25.
- 이용재 (2008).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 전략: ‘원북 원부산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247-265. <https://doi.org/10.16981/kliss.39.3.200809.247>
- 장덕현 (2022). ‘원북 원부산’을 통해 본 한책 한도시 캠페인의 성과와 반성. 인문사회 21, 13(1), 1589-1598.
- 조찬식 (2013).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시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201-221. <https://doi.org/10.4275/KSLIS.2013.47.2.201>
- Arkansas State Library (2023). If All Arkansas Read the Same Book. Available: <https://www.library.arkansas.gov/programs/arkansas-center-for-the-book/if-all-arkansas-read-the-same-book/>

- Chicago Public Library (CPL) (2021a). About OBOC. Available:
<https://www.chipublib.org/about-oboc/>
- Chicago Public Library (CPL) (2021b). Previous OBOC Titles. The Sixth Extinction: One Book, One Chicago 2019-2020. Available:
<https://www.chipublib.org/the-sixth-extinction-one-book-one-chicago-2019-2020/>
- Chicago Public Library (CPL) (2023). Available:
<https://www.chipublib.org/one-book-one-chicago/>
- Dayton Metro Library (2021). About the Big Read. Available: <http://bigread.org/about>
- Dempsey, B. (2009). One great idea. *Library Journal*, 134(14), 19-22.
- Fuller, D. & Sedo, D. R. (2004). Minireport to the Organizing Committee of One Book, One Community, Kitchener/Cambridge/Waterloo. ON, Canada, 9 November 2004.
- Hamilton County Foundation (2017). One City, One Book Launched. Available:
<https://www.hamiltonfoundation.org/news/one-city-one-book-launched-/>
- Harder, A., Howard, V., & Sedo, D. R. (2015). Creating cohesive community through shared reading: a case study of One Book Nova Scotia. *Partnership: The Canadi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and Research*, 10(1), 1-21.
- Lanksbury, S. (2012).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Washington Reads Program at the Washington State Library. *Medium*, Spring 2012, 36(3), 12-13.
- Lawrence Public Library (2023). 2022 Read Across Lawrence for Adults. Available:
<https://lplks.org/read-across-lawrence/>
- Library of Congress. Center for the Book (2017).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Selected List by Author. Available: <http://www.red.gov/resources/state.php>
- Macdonald, M. (2023). Seattle Public Library's Citywide Book Club, Seattle Reads, Turns 25. *The Seattle Times*. Available:
<https://www.seattletimes.com/entertainment/books/seattle-public-librarys-citywide-book-club-seattle-reads-turns-25/>
- Maryland Humanities (2023). One Maryland One Book. FAQ. Available:
<https://www.mdhumanities.org/programs/one-maryland-one-book/faqs/>
- Monaghan, E. M. (2014). One book well done. *Library Journal*, 139(14), 30.
- Penguin Random House (2023a). Common Reads. Available: <https://commonreads.com/about-us/>
- Penguin Random House (2023b). Julie Otsuka's novel *The Swimmers* is 'Seattle Reads' 25th anniversary selection. Available:
<https://commonreads.com/2023/05/08/the-swimmers-seattle-reads/>

- Pitman, Michael D. (2023). New York Times Bestseller to Speak at One City One Book Hamilton Event. Journal-News. Available:
<https://www.journal-news.com/what-to-do/new-york-times-bestseller-to-speak-at-one-city-one-book-hamilton-event/>
- Rogers, C. (2007). No need to read alone: One Book shared by communities large and small enriches literary experience. Reading Today, August/September 2007, 28-29.
-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18c). Impact on Cultural & Civic Engagement: Programs and Services to Support Cultural and Civic Engagement in 2017. Available:
<https://www.spl.org/about-us/library-impact/2017-impact-report/impact-on-cultural-and-civic-engagement>
-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19a). Seattle Reads. Available:
<https://www.spl.org/programs-and-services/authors-and-books/seattle-reads>
-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19b). Seattle Reads. The Best We Could Do, by Thi Bui. Available:
https://www.spl.org/Seattle-Public-Library/documents/programs-services/authors-books/SeattleReads/2019_SeattleReads-toolkit-online-version.pdf
-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19c). Impact on Cultural & Civic Engagement: Programs and Services to Support Cultural and Civic Engagement in 2018. Available:
<https://www.spl.org/about-us/library-impact/2019-impact-report/impact-on-cultural-and-civic-engagement>
-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20a). About Seattle Reads 2019. Available:
<https://www.spl.org/programs-and-services/authors-and-books/seattle-reads/seattle-reads-past-years/seattle-reads-2019>
-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20b). Seattle Reads. There There, by Tommy Orange. Available:
https://www.spl.org/Seattle-Public-Library/documents/programs-services/authors-books/SeattleReads/2020_Seattle-Reads-Toolkit.pdf
-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20c). Impact on Cultural & Civic Engagement: Programs and Services to Support Cultural and Civic Engagement in 2019. Available:
<https://www.spl.org/about-us/library-impact/2019-impact-report/2019-impact-on-cultural-and-civic-engagement>
-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21a). About Seattle Reads. Available:
<https://www.spl.org/programs-and-services/authors-and-books/seattle-reads/about-seattle-reads>
-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21b). About Seattle Reads: 2021. Available:
<https://www.spl.org/programs-and-services/authors-and-books/seattle-reads/seattle-reads-past-years/seattle-reads-2021>

ds-past-years/seattle-reads-2021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21c). The Vanishing Half by Brit Bennett. Available:
https://www.spl.org/Seattle-Public-Library/documents/programs-services/authors-books/SeattleReads/Seattle-Reads_toolkit_202105_final.pdf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21d). Seattle Reads Presents Lisa Myers Bulmash. Available:
<https://www.youtube.com/watch?v=CWDU7AN-WCo>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21e). Impact on Cultural & Civic Engagement 2020. Available:
<https://www.spl.org/about-us/library-impact/2020-impact-report/2020-impact-on-cultural-and-civic-engagement>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23a). Seattle Reads 2023. Available:
<https://www.spl.org/programs-and-services/authors-and-books/seattle-reads/seattle-reads-2023>; https://www.spl.org/Seattle-Public-Library/documents/programs-services/authors-books/SeattleReads/SeattleReadsToolkit_2023.pdf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23b). Seattle Reads Past Years. Available:
https://www.spl.org/Seattle-Public-Library/documents/programs-services/authors-books/SeattleReads/SeattleReads2022_DiscussionGuide.pdf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Big Read (2023a). About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 Available: <https://www.arts.gov/initiatives/nea-big-read>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Big Read (2023b). Active Books. Available:
<https://www.arts.gov/initiatives/nea-big-read>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Big Read (2023c). Announcing the 2023-2024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 Communities. June 14, 2023. Available:
<https://www.arts.gov/news/press-releases/2023/announcing-2023-2024-national-endowment-arts-big-read-communities>

The Seattle Public Library Foundation (2023). Seattle Reads celebrates 25 years of connecting people through storytelling. Available:
<https://supportspl.org/2023/05/seattle-reads-celebrates-25-years-of-connecting-people-through-storytelling/>

University of Birmingham (2006). Beyond the Book: Mass Reading Events and Contemporary Culture of Reading in the UK, USA and Canada. Available:
<http://www.beyondthebookproject.org>

Washington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State Library (2023). Washington Reads. Available:
https://www2.sos.wa.gov/library/wa_read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urkhyun (2022).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One Book One City Campaign as viewed through ‘One Book One Busa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3(1), 1589-1598.
- Cho, Chan-sik (2013). A study on the public reading campaign: the case of ‘One Book, Seongbuk’ Campaign in Seongbuk-Gu, Seou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201-221. <https://doi.org/10.4275/KSLIS.2013.47.2.201>
- Lee, Kook-hwan (2018). A study on ‘One Book, One City’ as a reading movement. *Seokdang Nonchong*, 72, 81-110. <http://doi.org/10.17842/jsa.2018..72.81>
- Lee, Yong-Jae (2006). The present stage and prospects of the reading campaign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One Book, One City’ Projects. *Journal of Korean Biblio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1), 5-25.
- Lee, Yong-Jae (2008). The present stage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One Book, One City’ campaign: a case study of ‘One Book One Busan’ proje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247-265. <https://doi.org/10.16981/kliss.39.3.200809.247>
- Oh, Seran (2019). An analysis of children’s books and youth books selected for ‘One Book, One City’ in Korea. *The Korea Association of Research of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24, 103-140. <http://doi.org/10.24993/JKLCY.2019.06.30.103>
- Woo, Yun-Hee & Kim, Jong-Sung (2014). An analysis of books selected for ‘One Book, One Cit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309-336. <https://doi.org/10.16981/kliss.45.4.201412.309>
- Yoon, Cheong-Ok (2013a). A study on the continuity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in the U.S.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5-27. <https://doi.org/10.16981/kliss.44.3.201309.5>
- Yoon, Cheong-Ok (2013b).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in the U.S.A. Seoul: Joun Geultoe.
- Yoon, Cheong-Ok (2017). An analysis of ‘One Book’s selected in twenty year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s in the U.S.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3), 45-64. <https://doi.org/10.4275/KSLIS.2017.51.3.045>
- Yoon, Cheong-Ok (2018). An analysis of books selected in 10 Years of ‘The Big Read’ Reading Initiativ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1), 159-178. <https://doi.org/10.4275/KSLIS.2018.52.1.159>

- Yoon, Cheong-Ok (2021a). A research on the present state of 'Reading Cheongju' reading promotion campaig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59-84.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059>
- Yoon, Cheong-Ok (2021b). *One Book, One City, and Our Libraries*. Suwon: Gyeonggido Cyber Library.
- Yoon, Cheong-Ok (2022). A research on the books selected in 'One Book, One C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2), 165-188. <https://doi.org/10.16981/kliss.53.2.202206.165>
- Youn, You-Ra (2017). A case study on one of the public reading campaigns in Korea, the 'One Book' campaign: an analysis of 'A Book of Gimhae' project. *The Journal of Humanities (Dongui University)*, 43(8), 193-215. <https://doi.org/10.21582/TJH.2017.02.43.193>